

## 목록

2006_1	1
2006_2	2
2006_3	3
2006_4	4
2006_5	5
2006_6	6
2006_7	7
2006_8	8
2006_9	9
2006_10	10
2006_11	11
2006_12	12
2006_13	13
2006_14	14
2006_15	15
2006_16	16
2006_17	17
2006_18	18
2006_19	19
2006_2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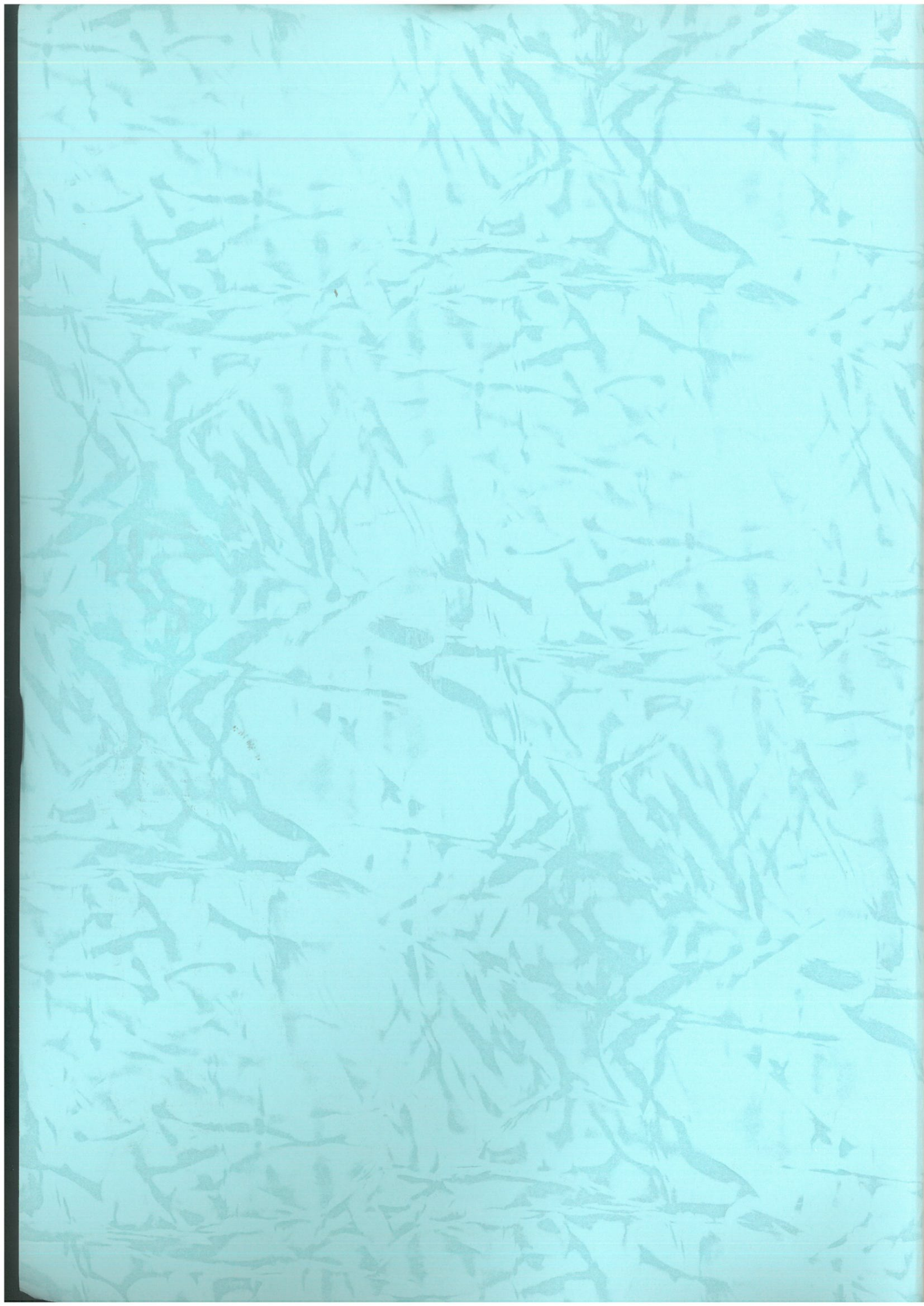
2006년도 지식 정보 학부 학회지

# 그림비

知  
識  
情  
報







# 그림비

## 목 차

Column 01	3
변화하는 도서관과 법칙	
Interview	4
07학번 새내기를 소개 합니다	
Issue	6
2006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강연후기	11
홍세화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인문학의 위기'	
Column 02	12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Interview	14
총대의원회 -한성대의 숨은 일꾼을 만나다	
Column 03	15
독서의 유익함	
서점 둘러보기	16
반디 앤 루이스	
책을 말하다	17
-우리는 사랑일까, 향수	
Movie Talk	18
삼거리 극장, 프리즌 브레이크	
문학칼럼 01	21
살아가다	
문학칼럼 02	22
눈꺼풀	
지정CARTOON	24
한해를 마무리하며	25
-2006년은 나에게	
지정인의 밤이란?	27
NEWS	28
편지 써주세요~	29
편집후기	30



## 변화하는 도서관과 법칙

도서관학 5법칙,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자 랑가나탄에 의해서 정립된 5가지의 법칙이다. 그가 죽은 지 어느덧 50년이 지났지만, 현재에도 이 법칙은 문헌정보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5법칙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1. 도서는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Books are for use.)
2. 도서는 만인을 위한 것이다. (Books are for all; or, Every reader his book.)
3. 모든 도서는 그에 맞는 독자가 있다. (Every book its reader.)
4. 독자(이용자)의 시간을 덜어 주어라. (Save the time of the reader.)
5.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A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

이 도서관학 5법칙은 도서관 운영에 적용할 만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의 운영에도 이 도서관학 5법칙은 적용 될 수 있다. 그 만큼 도서관학 5법칙은 사서에게, 또 사서를 꿈꾸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서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학 5법칙. 이 5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을 들 수 있을까? 나는 제5법칙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이 제5법칙이 도서관학 5법칙을 더 빛나게 해 주는 것 같다.

요즘 도서관이 예전과 많이 달라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전의 도서관의 모습은 단순히 책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현재 도서관에서는 예전의 그러한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보' 라는 개념이 중요시 되고, '정보' 에 죽고 '정보' 에 사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정보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물 같은 존재를 도서관이 다루려고 하고 있다. 단순히 책에서 정보라는 훨씬 더 포괄적인 존재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5법칙이라고 생각한다.

랑가나탄의 도서관학 5법칙이 매우 현실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도서관학 5법칙이 도서관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랑가나탄이 도서관학 5법칙을 성립시킨 뒤 60년 후 신 도서관학 5법칙이란 것이 나온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랑가나탄의 도서관학 5법칙, 신 도서관학 5법칙 모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이야기들이겠지만 진정 유능한 사서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만의 법칙을 갖고 도서관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김남호 선전부원



## 知識情報

07학번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수시1학기,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당당히 합격한 07학번 김수지, 이솔, 윤요섭 세 명의 예비 새내기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다른 07학번들 보다 일찍 학교를 다니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수지: 고등학교 때와 다른 수업방식이 색다르고 좋아요.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하구요. 먼저 앞서 배운다는 뿌듯함도 있고요.

솔: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폭넓은 학문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어렵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 자체로도 보람찬 것 같아요.

요섭: 학교를 먼저 체험할 수 있어서 대학 생활에 적응이 잘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수업 방식이 다른데, 그 다른 점을 빨리 습득해서 3월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수지: 우선 교복을 안 입어서 좋고, 너무나 자유로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출석을 한다, 안 한다면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대학교는 출석을 안 하면 고스라니 자기 손해이니깐,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만 그만큼의 책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솔: 그리고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요. 선생님, 선생님 부르는 게 입에 버릇처럼 붙어버렸는데 어색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섭: 고등학교는 집 앞에 있었는데 대학교는 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였는데, 대학교는 남녀 공학이라 색달라요.

지식정보학과에 대한 상식은 어느 정도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지: 문헌정보학과 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전공지식에 대한 것은 아직 많이 부족 한 것 같아요. 차차 알아가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졸업해서 사서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사서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솔: 졸업하면 정사서 자격증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선배님들께 여쭙어서 알아가겠습니다.

요섭: 아직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니까 선배님들께 여쭙어 보아서 차차 알아가도록 할게요.

선배들을 일찍 만나본 소감은 어떤가요?

수지: 빨리 친해질 수 있어 과에 적응을 잘 할 것 같아요. 또 전공지식이나 학교생활 같은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어서 좋고요.

솔: 잘 몰라서 부탁할 것이 있는데 요청할 수 있는 선배가 생겨서 좋아요.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밥도 사주셔서 좋아요.^^

요섭: 선배님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좋아요. 대인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또 좋고요.

대학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간단하게 한 줄로 정의 내려 주세요.

수지: 지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솔: 스스로를 책임지기 시작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요섭: 자립심을 기르고, 사회생활을 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선배님&교수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수지: 머지않아 새내기로 입학할 텐데, 대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충고나 조언 아끼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구요. 입학하면 잘 부탁드립니다!

솔: 전공 공부에 대한 도움 많이 주시고, 학교 입학하면 열심히 할 테니 예쁘게 잘 봐주세요. 전공도 처음 접해보는 과목인지라 빨리 배우고 싶어요. 선배님, 교수님 모두 빨리 뵙고 싶습니다.

요섭: 아직 새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몇몇 선배님들과 만나 뵙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배님들 뵙고 싶어요. 3월 달이 돼서야 뵙 수 있는 교수님들도 빨리 뵙고 싶고요. 교수님들의 멋진 강의를 들을 생각 하니 설레요.

첫 대면의 인연이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06학번 새내기로 입학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07학번 새내기들이 입학할 준비를 하니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아직 학교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전공에 대해 알고 싶은 열의에 차있는 07학번 예비 새내기들과의 비록 짧은 인터뷰였지만, 한층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월, 수, 금요일마다 예비학교에 오기 위해 학교를 찾는 07학번 예비 새내기들을 보면서 다음 년도에 들어올 더 많은 새내기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하는 3월, 새로 시작하는 마음은 언제나 깨끗하고 설렘 테지요. 그때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내년 3월에 07학번 새내기들이 입학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재 임경아, 최다환

글 임경아 선전부원

사진 김유리





도서관인의 축제! 문화올림픽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 WLIC -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제 72차 IFLA대회

도서관: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



도서관인의 축제이자,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2006년 8월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150개국으로부터 4,000명 이상의 도서관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지식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관련 산업분야의 최근 발전 동향 등을 볼 수 있는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이자 배움의 장인 WLIC을 살펴보자!

올해로 72회를 맞는 IFLA대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8월 20~24일 5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도서관: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서울대회는 약 200여개의 세미나 및 워크숍, 국내외 200여 도서관 정보 관련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 문화의 밤, 각종 문화행사, 문화관광부 리셉션, 서울특별시 리셉션, 포스터세션, 도서관방문 등의 다양한 공식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나 이번 서울대회 참가자는 약 4870명으로 역대최고 참가자 기록을 갱신하며 성공적으로 치렀다.

### \*알아두기: IFLA와 WLIC이 무엇이죠?

IFLA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의 약자입니다.

도서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비영리 국제기구로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150여 개국의 도서관협회, 도서관 및 관련 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WLIC란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의 약자로서 매년 8월경 열리는 IFLA의 연차총회를 의미합니다.



개회식 (8월 20일)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알렉스 번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는 김대중 전대통령, 이회호 여사,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신기남 조직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많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도서관은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입니다. 여러분은 그 견인차를 운전하는 자랑스러운 운전자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 전시회

150개 이상의 세계 기업 및 기관들이 참가한 전시회에서는 도서관 및 정보화 관련 용품 및 소프트웨어 기자재 등을 전시하고 홍보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첨단 도서관리 기술인 RFID기술과 함께, 전자책 업체인 북토피아에서 선보인 ‘유-라이브러리’(U-Library) 시스템은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는 책을 대출하면 PC



와 PDA, 휴대전화에서를 통해서도 책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전자책을 대출할 경우 PC에서만 읽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 포스터 세션

포스터세션(Poster session)은 자신의 연구를 홍보하는 적극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세션에서의 포스터 등의 시각적 자료들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포스터세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더 상세한 질문을 발표자에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발표장소가 개방적이고 그 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지나갈 때, 자신의 포스터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나타낼 수 있어야한다.

포스터세션은 현장성이 높아 자신의 포스터 세션(Poster session)에 관심을 보인 참여자들과 발표자가 일대일로 정보에 대해 학습하거나 토론할 수도 있고, 주제에 한정받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문화의 밤 (22일)

문화의 밤은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시간에 걸쳐 전통 예술 공연에서부터 현대예술 공연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과 예술 그리고 문화를 널리 알렸다.



##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방문 현장



도서관 방문 (23일)

참가자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각국 도서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사로 도서관 방문의 기회를 제공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37개의 도서관을 선정했는데 우리 한성대학교의 학술정보관도 그 중 선정되어 세계 각국의 사서들을 맞이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RFID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RFID(무선 주파수 식별)를 이용하면 바코드처럼 직접 접촉하거나 가시대역 안에서 스캐닝 할 필요가 없어서 한꺼번에 여러 권의 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고, 서가의 오 배열 점검이나 개별 아이템 검색도 손쉽게 할 수 있다.

휴대용 리더기에 올바른 배열정보를 입력하고 서가를 훑어주면 잘못 꽂힌 책이 있을 때 경보음을 울린다. 또 찾으려는 책의 태그 숫자를 입력하고 서가를 리더기로 훑으면 원하는 책을 찾았을 때 소리로 알려준다. 이 기술은 책뿐만 아니라 CD, DVD,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등 모든 유형의 자료에 사용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학교를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 아리랑 정보도서관, 헌법재판소 등 30여개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RFID를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Hansung Digital Library 방문한 참가자들과 함께



△ 학술정보관장 조인숙 교수님의 인사말

△ 학술정보관 로비 투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 멀티미디어 정보실 투어



△ 농경생활사 전시관 투어



△ 투어 후 간단한 스낵파티



## 각종회의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는 IFLA의 47개 분과에서 주관하는 200여 개의 각종 회의가 진행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문가, 학자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주제에 새로운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발표 논문들은 관련 주제 분과별로 논문 공모를 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주제가 IT이다 보니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20일), '동아시아 신문역사 디지털신문', '역동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기술전략 도구' (21일), '도서관과 IT' (23일) 등 도서관 자료와 IT 기술의 접목, IT산업과 도서관의 연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분과 주제 회의는 대회 기간 중에 개최되었고 이 외에 대회 기간을 전후하여 전문위원회, 상임이사회 등의 임원 회의가 열렸다.

IFLA의 각 분과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전문위원회 등은 IFLA의 활동 방향, 실무에 관한 부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 폐회식(24일)



폐회식에는 IFLA 회장의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포스터세션 작품상 및 최고의 뉴스레터 상을 포함한 다양한 수상식이 거행 되었다.

대회기간동안의 진행 모습과 참가자들의 모습을 모아 영상물로 재미있게 엮어 보여주며 지난 5일의 일정을 되짚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다음 대회의 조직위원장의 인사말과 대회홍보가 스크린을 통해 소개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간단한 예술 공연 등도 진행됐다.

일주일이 안 되는 대회기간이었지만 5일 동안 많은 도서관인들은 세계도서관의 흐름과 발전방향에 대해 느끼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됨을 통해서 지식기반 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국 도서관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도적 지위 확보와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서관 문화와 지식정보 기반산업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쉽게 오지 않는 기회로서 도서관 관련계통의 사람들 및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라면 다들 꼭 참여 하길 원하는 행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참가하겠다는 의지와 상관없이 WLIC에 참가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다.



IFLA 비회원일 경우 1인당 참가등록비는 525유로(약 65만원) 학생의 경우는 200유로(약 25만원)를 부담해야 했다.

허나, 이외에도 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원봉사단으로의 참여이다. 행사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가 가능하거나, 국제행사 현장요원 경험이 있다면 선발에 우선권이 주어졌다. 자원봉사단으로서 활동하게 되면 참가비 면제로 회의 프로그램 세션 및 전시회에 참석 가능하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계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보고 많은 도서관 관련 정보도 얻고 봉사를 통해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도 이번행사엔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면 자원봉사단으로 활동 하여 뜻 깊은 경험을 가져 봤으면 한다.

한국의 도서관, 한성대학교의 학술정보관이 이러한 국제적 행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본다.

최복이 선전부장

Reference

한성대학교 홈페이지 [www.hansung.ac.kr](http://www.hansung.ac.kr)

2006 서울도서관정보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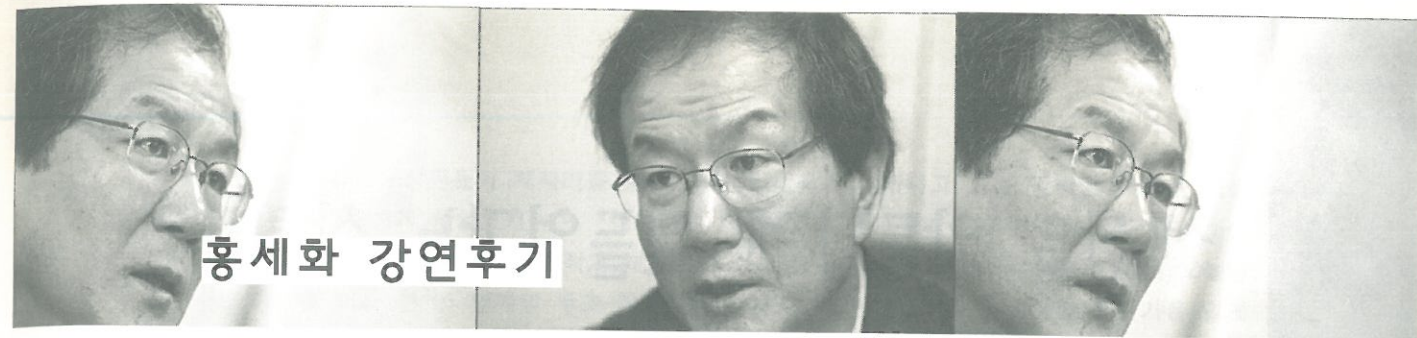
<http://www.ifla2006seoul.org>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자원봉사단의 활동모습과  
자봉단 발대식 팸플릿 (왼쪽 아래)



홍세화 강연후기

##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인문학의 위기'

6대 인문대 학생회장  
지식정보 04 | 최은영

안녕하세요? 지식정보학부 04학번 최은영입니다. ^^ 1학기 그림비에 이어 2학기에도 작은 글을 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적어볼까 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홍세화씨의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인문학의 위기' 라는 강연의 후기를 올릴까 합니다. 오셨던 학우들도 있고 못 오신 학우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대학생들의 고민을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홍세화씨는 '나는 바리의 택시운전사' 로 많이 알려졌으며 한국의 교육문제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지 않은 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이 시작되었고요. 조용한 목소리로 가장 먼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하셨습니다.

먼저 육체적(물질적), 정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높게 매기고 어떠한 가치를 위해 살 것인가 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연 중 모 기업의 "대한민국 1%", "당신의 사는 집이 당신을 평가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예로 들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즉, 어떻게 인간이 물질에 의해 평가받고, 또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으며, 지금의 한국사회는 이것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대학생들에게도 전염되어, 그들의 관심이 소유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걸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과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나에 대해 5가지 보기 중 그 비중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삶의 과정을 돌이켜보자는 이야기로 하셨습니다. [①폭넓은 독서의 산물이다. 책-세계와 만나는 창, ②열린 토론의 형성물이다. 토론-문제의식이 형성, ③여행, 견문, 경험의 결과물이다. ④도를 닦았다. ⑤나도 모른다]라는 보기였는데요. 우리 지식정보학부 학우들은 어떠한 보기가 많으신지요? 이러한 보기 중에 홍세화 선생님은 독서와 토론이 좋은 방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도 학생 때 많은 책을 보았고 토론을 통해 진보적 가치관에 대한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학생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의 모순에 대해 저항하고 사회의 진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행복에 구애받지 않고 정신적 가치를 높이며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 어려운 얘기이지만 나의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삶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학생이기에, 멋진 청춘이기에, 더 훌륭한 삶을 위해 많은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스스로 도도 닦아보고하면 어떨까요?

이상 지식정보학부 04학번 최은영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지식정보학부장 강순애 교수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푸르던 나뭇잎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드러내어 울긋불긋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람들은 각각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잠시 사랑하는 제자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열리는 것임을 문득 깨달았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보고 듣고 배우면서 생각할 것도 많아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무엇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많이 변했다. 그들은 매우 솔직하고 자기주장이 분명하다. 일의 처리능력이 빠르고 속도감을 즐기며 개방적이다. 반면에 겸손함과 인간미가 결여되어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정겹고 그리운 것은 사람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도란도란 살아가는 것이다. 가정이란 사회에서든 이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하소연하는 것이 똑같다. 자식들은 다 키워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자식들로부터 부모 대접도 못 받고 버림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재산목록을 공개하고 자식들이 올 때마다 선심 쓰면서 선물이나 가끔씩 사주고 대접 잘해서 보내야 자주 찾아 올 것이고 죽을 때는 한 푼도 남겨주지 말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의 단편이다. 가족 간에 인간애는 없고 경제관계속에서 지탱되는 가족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해체를 걱정하거나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극복하는 것은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요즘 극장가에도 가족애를 그린 영화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임태형이 제작하고 박지빈이 주연한 “안녕 형아”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고민을 잘 표현했다고 해서 루카스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11월 말에 개봉될 예정인 한석규 주연의 “사랑할 때 이야기 하는 것들”에서 극중 장애인 형을 돌보는 악사역을 맡은 주인공은 아버지가 남긴 수억원 빚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이다. 가족은 결국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지긋지긋한 굴레이자 우리들 사랑의 근원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제자리를 잃고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각박한 시대에 나는 지식정보학부 학생들에게 최인호가 쓴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여백, 2004)라는 자전적인 소설 속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 책은 작가 최인호가 그리는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어머니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알게 해준다. 또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이들에게는 아련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최인호가 20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며 예순여덟 살부터 여든까지의 이야기를 가족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미움, 반목과 갈등, 죄책감, 연민, 추억 등을 솔직하게 기술한 자전적 소설이다.

작가 최인호에게 어머니는 더욱 특별한 존재이다. 가난한 집안의 3남3녀 중 다섯째로 성장한 작가의 어머니는 아홉 명의 아이를 낳아 셋은 죽고 여섯을 건졌으며, 마흔 여덟에 남편을 여의고 하숙을 치면서 억척스럽게 자식 여섯을 길러낸 분이다.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출세라는 것도 했는데, 막상 버거운 삶을 살아내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어머니는 늙고막에 다리를 못 쓰는 앓은뱅이에 눈도 제대로 못 쓰는 심봉사가 된 것이다. 자식의 입장에서 짐이 되어 버린 노모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애증어린 이야기들을 자식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연민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다. 작가의 슬프고도 청승맞은 고백 속에서 그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자신들의 어머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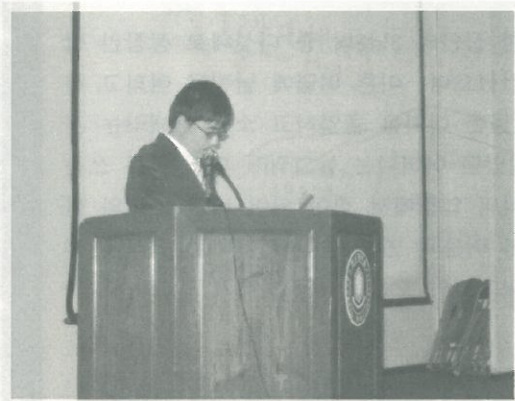
작가가 소설을 통하여 고백 성사하듯이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작가의 어머니는 그의 솔직한 고백, 추억과 그리움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다.

나는 지식정보학부 학생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고 어디서나 행복함이 묻어나고, 사람들이 늘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인호 작가가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있는 소박하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 곳은 진정 아름답고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 '한성대의 숨은 일꾼을 만나다' **총대의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는 옛말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다. 흔히 사람들이 '총대' 라 줄여 부르는, 한성 학우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대의원회' 이다. 이곳은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각 기구 및 학생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숨은 일꾼' 이라는 모토와 함께 학우들의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곳이다.



총대의원회는 지식정보학부의 여러 학형이 몸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우리 과와 남다른 인연을 가진 학생기구이다. 이번 총대위원회 인터뷰는 그 인연의 한 끈이신 '00학번 김동선' 학형과 나누어보았다.

먼저, 인터뷰를 하기위해 들어선 총대위원회는 생각했던 '엄숙함' 과는 달리 '편안함' 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들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는 '열정' 이 숨어있다. 편안함과 열정이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그 당시 내 머릿속에 스쳐갔던 이 단어들이 만들어낸 이 공간에서 이들은 무슨 일을 할까?

**감시**

"총대의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학생기구입니까?" 물음을 던졌다. 이런 **뻔한**, 아니 **식상한** 질문을 받으신 김동선 선배님은 미소를 띠시며 이내 입을 뗐다. '총대의원회의 가장 큰 사업은 **감시**이다.' , 크게 세 개의 항목으로 나뉘는데, 회계, 공약, 사업의 '감시권' 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칙개정, 학생복지위원장, 졸업준비위원장 '인준권 및 해임의 의결권' 을, 학생회비, 사업계획서, 사업보고, 예산결의안의 '심의 및 승인권' 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자치 기구와 회장 및 위원장 '탄핵권' 을 행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의 모든 활동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적용되어 행해진다.

식상한 질문에 식상하지 않은 질문 **신선한** 답이 나왔다. 내가 이 물음의 답에 신선하다는 표현을 굳이 넣고 싶은 이유는 이것이다.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학우들에게 총대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물어보는 질문을 던져 보았지만, 그 질문의 답을 알지 못하는 이가 다수였으며, 이 답을 모르는 것과 동시에 이 기관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학우들이 없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현상을 알고 보게 되었을 때 신선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총대위원회의 활동을 알게 되었으니 이에 '신선함' 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 할 수 있다. 허나, 이러한 신선함을 느낄 수 있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면, 총대위원회의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식상한 질문에 이어, 다소 낯익은 질문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총학생위원회에 비해 총대위원회를 모르는 학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대위원회가 자신들의 모토인 '숨은 일꾼' 을 지향하는 하기에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홍보의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학생위원회가 대중사업을 많이 하여, 학우들에게 알려지고 어울리는 것과 달리 총대위원회는 대중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총 "대" 대의원 즉, 과대가 무엇 인지, 과대의 역할을 무엇 인지? 총대위원회를 이루는 이들에 대한 홍보효과가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

숨은 일꾼  
숨은 일꾼

겠다. 이렇게 홍보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알리지 않는다고 이들이 이들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누구 보더라도 이들은 '한성대의 자랑스러운 숨은 일꾼' 이 아니던가? 현재 총대위원회에서는 대중사업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금강산사업' 을 추진 중이다.

끝으로 "총대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일하시면서 **뿌듯하거나 힘들었던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2년이란 작은 숫자 속에 든 긴 시간들 중에서, 가장 뿌듯한 점을 꼽으라면 '학교재정의 투명성' 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등록금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이 시점에서 등록금의 일부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 그 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고 감시하는 끊임없는 활동의 대가로 얻은 '학교재정의 투명성' 은 21대 총대위원회의 자랑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끝없는 목표라 할 수 있다.

총대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이루어 논, 이 결과물의 과정에는 선배님만의 남모름 고통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학과 일과 총대위원회의 일을 동시에 맡고 있기에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행하지 않고자 한 의지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남들 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고통이기에 그 고통은 남들의 어떠한 열정과 의지보다도 값지다.

어떠한 것에 대한 무관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우리학교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학생기구들이 자리 잡았으며,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권리를 주장하여, 그들이 왜 홍보를 하지 않는가의 문제의식 전에 자신의 호기심을 발동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학교의 등록금, 학교의 크기, 학교의 작은 잔디밭까지 외형적인 것들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는 학생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가는 일, 관심을 갖는 일은 자랑스러운 숨은 일꾼의 일터인 '총대의원회' 의 일꾼들이 앞으로 더욱 더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신선함과 어떠한 것보다 값진 고통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글을 마친다.

**학교재정의 투명성**

취재, 글 이혜리 선전부원





## COLUMN 03 독서의 유익함

다독상 수상자  
지식정보 05 문화원 학우

우리는 아침에 저절로 눈이 뜨이면 일어날 것인지 더 잘 것인지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지, 누구와 사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책을 볼 것인지와 같이 매일, 매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위의 이 말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지금 뚱뚱한 사람은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한 결과일 것이고 성적이 좋지 않다면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한 것의 결과인 것이다. 즉 지금의 내 모습은 그 동안 내가 해온 선택과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내 모습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내가 하는 선택과 경험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선택에는 거의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내 생각에는 바로 자신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의 다양성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준이 된다. 지금 대학 재학 때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독서라고 생각을 한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경험을 늘려나가고 자신의 선택 기준을 확대해 가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을 읽는 목적은 책을 통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깨달음을 얻는데 있다. 그러므로 책을 선택하고 그 책을 통해 내 경험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만이 아닌 여러 분야의 잡학 책을 읽어두면 도움이 된다. 지금 당장은 쓸모없는 지식이어도 나중에 가면 아주 활용도가 높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자기가 배우는 학문의 이해할 수 없던 곳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적극적인 독서의 출발점은 바로 책을 고르고 읽어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물론 자신의 관심분야는 물론 다양한 영역의 책을 선택하고 읽어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행착오 즉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책을 고르는 해안을 갖게 될 것이다.

독서가 하나의 과목으로 전락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늘려간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책 읽기를 시도한다면 자칫 하나의 과목으로 전락되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잘못은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서점 둘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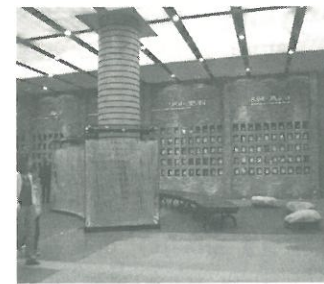
-반디 앤 루이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책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컴퓨터로 보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전자매체에서는 책에서와 같은 정겨움은 느낄 수가 없다. 때문에 서점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듯 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서점도 변화해야 한다. 요즘의 서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닌,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종각역 밀레니엄 플라자에 위치하고 있는 반디 앤 루이스는 이러한 요즘의 서점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서점이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서점입구인지, 광장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외관과 인테리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책을 파는 곳만이 아닌 책이 함께하는 공간을 파는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단순히 책을 사기위해서만 가는 곳이 아닌, 이야기 공간, 문화공간으로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점 앞 광장의 유리관은 전시효과뿐 아니라 그 유리관 안에 년대별 베스트셀러들과 신간 책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벤치를 놓아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있다보니 나도 왠지 책이 읽고 싶어져서 발길이 자연스럽게 서점으로 향했다. 서점 안으로 들어가보니, 작년에 생긴 서점이니 만큼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찾고자 하는 책을 찾을 때, 검색어를 입력하면 책의 위치가 책장번호, 책장의 몇 번째 단에 꽂혀있는지 까지 정확하게 나와서 책을 찾을 때 매우 편리했다.

이렇게 반디 앤 루이스 서점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편리하고 유익한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

임혜미 선전부 차장





# 책을 말한다.



## 우리는 사랑일까-알랭 드 보통

이 책에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하다.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애써아닌 척 부인하던 여주인공 엘리스는 파티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에릭을 사랑하게 된다. 에릭은 엘리스에게는 완벽한 상대였기 때문에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녀는 항상 자신의 탓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엘리스의 공작지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했고 엘리스는 에릭을 사랑하는 동안 자신이 자신에 대해 소홀해져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엘리스는 자아를 찾게 된다.

책을 읽어가면서 나는 엘리스와 에릭의 사랑의 과정이 다른 연애소설과는 달리 현실적임을 느꼈다. 특히 엘리스의 생각과 행동방식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사랑의 시작과 끝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사랑의 흐름 속에서 엘리스의 심리적 변화와, 사랑에 대한 생각과 갈등은 사랑을 할 때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여자들을 위한 사랑 이론서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강다해 선전부원

## 향수-파트리크 쥐스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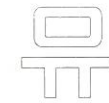
향기가 없는 사람. 누구나 자신만의 체취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될 수도 있고,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수단 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인공 그루누이에게는 아무런 체취가 없다. 만일, 나에게 아무런 체취가 나지 않아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하지 않고는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참혹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즉, 향기를 얻기 위해 살인을 일삼으며 지독한 병 또한 이겨내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런 생을 살아간다. 이런 점에서 향수는 독자로 하여금 그루누이를 단순히 냉혹한 살인자라고 낙인 시키기보다 목표를 위해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지독히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달려감에 오히려 묘한 감탄을 느끼게 한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정직한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 조금은 어긋난 길을 가지만 금세 뉘우치고 자신이 가야할 길로 돌아와 살아가는 사람, 그루누이처럼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뉘우침 없이 달려가는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중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통의 이들이라면 일생동안 살인마의 삶을 경험해 보는 일은 드물 것이다. 요즘처럼 지루한 일상생활에 지친 학우들에게 향수는 자신이 겪어 보지 못한 또 다른 이의 삶[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를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을 수 있는 색다른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장경선 선전부원

# movie talk



## 뮤지컬 판타지 영화 '삼거리극장'

<삼거리 극장>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여고생 소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영화로, 어느 음침한 저녁 소단의 할머니는 "삼거리극장에 간다."는 말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린다.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우연히 삼거리 극장의 매표원으로 취직한 소단은 그곳에서 유쾌한 유랑극단의 혼령들을 만난다. 낮엔 심드렁한 매점 아줌마지만 밤이면 삼거리극장 최고의 여배우로 변신하는 '에리사', 기괴한 옷차림과 장난기를 가진 '모스키토', 전생에 기생이었던 색소한 '완다', 일본 중위 혼령 '히로시'가 그들이다. 영화는, 이 기괴한 극장에서 소단이 괴로운 비밀을 품은 듯한 극장의 우기남 사장과 악령들을 만나며 자신과 할머니를 둘러싼 비밀들을 알아가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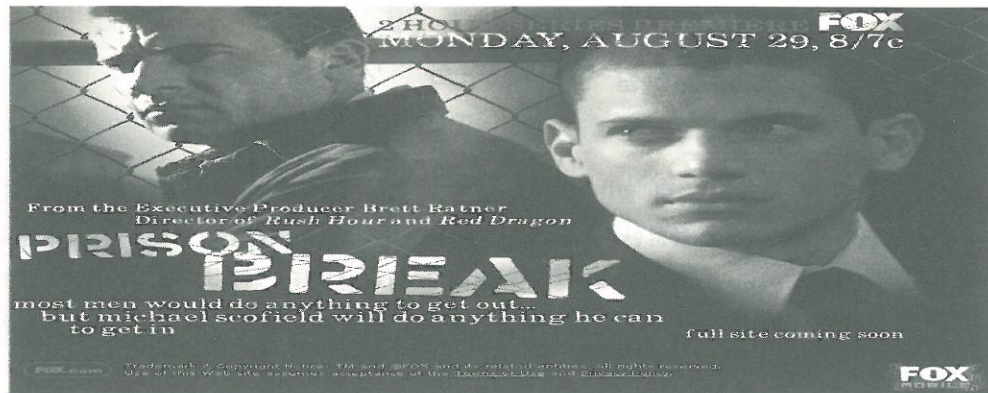
부천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삼거리 극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뮤지컬 판타지 영화이다. 뮤지컬과 연극계에서 활동중인 배우와 스텝이 참여, 뮤지컬요소를 극대화하려 노력했다. 전계수 감독은 <삼거리 극장>을 끈질기게 재미있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영화를 보며 관객들은 '톡' 쏘는 맛과 함께, 웃음과 이한 판타지, 섬뜩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적인 배우들은 아니지만,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 등의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다. <삼거리 극장>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멜로 영화나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닌, 새로운 장르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영화로 신선한 영화를 원하는 이가 이 영화를 본다면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윤지예 선전부원





tv시리즈영화, **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크는 팽팽한 긴장감과 스펙타클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TV 시리즈이다. 감 독이 여러 명이어서 다양한 장르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의 과제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 하나를 주인공이 택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손에 땀을 쥐게 한다. 목표를 위 해 우여곡절을 겪고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은밀하게 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 치 못한 소재들을 보여줌으로써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구조학에 탁월한 주인공 마이클 스코필드는 부통령 동생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의 위기에 처한 형을 탈옥시키기 위해 몸 전체에 교도소의 지도를 문신으로 새기고 의도적으로 은행 강도를 저질러 형이 있는 감옥에 수감된다. 기발한 줄거리와 흥미 넘치는 탈옥계획,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해가는 이야기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긴장감을 더한다. 감옥에 수감 중인 흑인 과 백인의 갈등과정과 탈옥 계획을 꾸미는 주인공 스코필드의 계략은 엄청나게 빠른 두뇌회 전과 임기응변 등 놀라운 기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 탈출을 함께 계획하는 인물들의 애매한 관계 같은 구도도 볼만하다. 또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다가도 금방 역전해내며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주 인공의 모습이 지켜볼만 하고 이 드라마 특유의 드라마틱한 구조가 보는 사람의 애간장을 태운다. 여러 가지 부분도 많지만 그 부분이 이 드라마의 중독성을 강하게 만들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이유인 것 같다.

영화는 2~3시간 내에 모든 것이 결론지어지는 만큼 아쉬운 부분이 많다. 물론 반지의 제 왕과 같이 3편 모두를 보기 위해서는 2년의 참을성을 요구하는 영화가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을 이 드라마는 만족스럽게 채워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또한 스킬 넘 치는 이야기들, 숨 막히는 긴장감, 주인공들을 힘들게 하는 숨겨진 음모, 얽히고설킨 등장 인물들의 사연이나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감은 이 드라마를 추천할 수 밖 에 없게 만든다.

석운재 선전부원

## 살아가다

한용덕 | 지식정보 06

황홀한 삶을 기르며  
너와 난  
먼 길을 말없이 함께 했구나  
빛나던 사색과  
근원 없는 모태를 둘러싼  
수많은 은빛 이상들  
눈부신 햇살이  
사계절 쉬지 않고 비추이던  
참 따스한 나들이였다  
친구야, 그런 우리가  
이제 우거진 수풀로 들어가려 한다  
각자의 나침반은  
엇갈린 정착지를 향해 이끌리고  
수많은 나뭇잎들에 가려  
너와 난  
한동안 서로를 잊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친구야,  
끝없는 수풀을 헤치다 지치면  
우리, 그늘진 심터로 모이자꾸나  
그때는 서로의 나침반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얼굴 돌아보며  
눈시울 짙해져도 괜찮을 것이다



# 눈꺼풀

이시연 | 지식정보 06

십 수년 만에 닥치는 무더위라는 어느 기상캐스터의 말대로 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다.

남자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고 있었다. 키 큰 나무 아래 있는 벤치에 앉은 덕에 웅덩이 같은 그늘이 남자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지만 남자는 그것만으론 부족했는지 손부채까지 휘휘거리며 있었다. 어느 정도 땀이 마르고 그들의 시원함이 느껴지자, 남자는 아까 벤치위에 올려두었던 콜라 캔에 손을 가져가더니 캔의 알루미늄 뚜껑을 종이 찢어 버리듯 뜯어내고는 입안에 들이붓기 시작했다 '크...'탄산의 톡 쏘는 맛이 사내의 목을 따끔거리게 했지만 그는 콜라가 주는 시원함에 만족했다. 통증과 시원함을 교환한다. 한 여름의 가장 합리적인 거래다.

완전히 비어버린 콜라 캔을 벤치위에 다시 올려 둔 남자는 이번에는 다리를 떨기 시작했다. 방아처럼 흠바닥을 내리찍는 사내의 다리 때문에 발아래에선 흙먼지가 피어올랐지만 사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데도 남자는 계속해서 다리를 떨고 있었다. 남자의 왼손에는 어느새 빈 콜라 캔이 다시 쥐어져 있었고, 그것도 온전한 모습이 아닌 온통 찌그러진 모습이었다. 다리를 떨고 손으로는 빈 캔을 쉴 새 없이 조물 딱 거리는 남자의 눈은 공원 앞 영어학원을 향하고 있었다. 사내의 눈빛에는 동경과 불안, 기쁨과 두근거림이 팔레트위의 문감처럼 섞여져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남자의 빈 옆자리에 누군가 잠시 앉았을 때도 그 눈을 타깃을 잃지 않았다.

캔이 완전히 찌그러져 반쯤 찢어져버린 상태가 될 즈음에 남자는 다리떨기를 멈추곤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서히 일어난 남자는 학원의 입구에서 걸어 나오는 한 여자를 바라봤다. 얼굴 가득 웃음을 바르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여자. 그 여자의 걸음은 분명 느린 편이었는데, 머릿속이 새하얗게 백지가 돼 버리고 가슴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어느새 자신의 코앞에 서있었다. 순간적으로 '어?'하며 소리를 낼 뻔한 남자는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그 여자에게 웃어보였다. 자신이 웃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두근거림 속에서.

"성수오빠. 오빠 무슨 일 있어요?"남자가 수없이 오고가는 서로간이 대화 속에서

기억한 말은 이것 하나였다. 고양이 앞의 쥐처럼 몸을 온통 긴장시킨 채 뻗뻗하게 있는 그가 그녀에게 우습게 보였을 것이다. 남자는 영화를 볼 때도 그랬고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항상 긴장하고 있었다. 같은 과 동기 녀석을 통해서 어렵게 자리를 마련한 그녀와의 만남이건만, 남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고작해야 '예'와 '아니요'였다. 혼련소를 거쳐서 막 부대에 입소한 신병의 모습이랄까. 남자는 어떻게든 이 긴장을 풀어보려 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눈을 마주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영화는 아마 흔한 연애 스토리였던 것 같다. 매표소 옆 매점에서 산 팝콘과 음료를 그녀에게 전해준 뒤부터, 남자의 온 신경은 입술을 우물거리며 팝콘을 씹어먹는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캄캄하게 조명이 꺼진 영화관 안에서 오직 스크린의 희미한 빛에 의지하며 그녀의 얼굴을 힐끔거릴 때 마다 남자는 은세계를 훑쳐본 것 같은 느낌에 얼굴을 붉혔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이 간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고개를 거의 수그리다시피 하며 여자의 시선을 피한 그는 샴 안의 아카시아 방향제 냄새와 함께 실려 오는 여자의 향기를 느꼈다.

'아, 이런 미친놈. 편집증 환자고 아니고 이게 무슨...' 남자는 머리를 두어 번 흔들며 상념을 날려버렸다. 그러곤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당황해하는 여자에게 말했다.

"눈꺼풀이 참 예뻐요."

그것은 첫 만남부터 여태껏 긴장한 채로 무뎠던 자신의 행동들에 대한 사과였다. 사과였음이 틀림없었다. 바로 다음순간 여자의 울음이 터지지 않았다면.

"오빠 정말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녀의 웃음은 천진난만했지만 남자의 머릿속은 방금 전 진흙탕에서 빠져나온 어린아이처럼 엉망진창이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표정은 여자의 웃음에 동화되어 질은 웃음기를 띄고 있었고 그 후로도 둘은 마주보고 웃기만 했다.

저녁 무렵, 그녀를 데려다주려 신당 역까지 따라갔던 그는 지하철에 타서 집으로 오는 시간 내내 자신이 했던 말을 곰씹었다. "눈꺼풀이 참 예쁘네?" 한 번 떠올릴 때마다 수십 개의 욕설들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바보, 멍청이, 숫기 없는 놈, 또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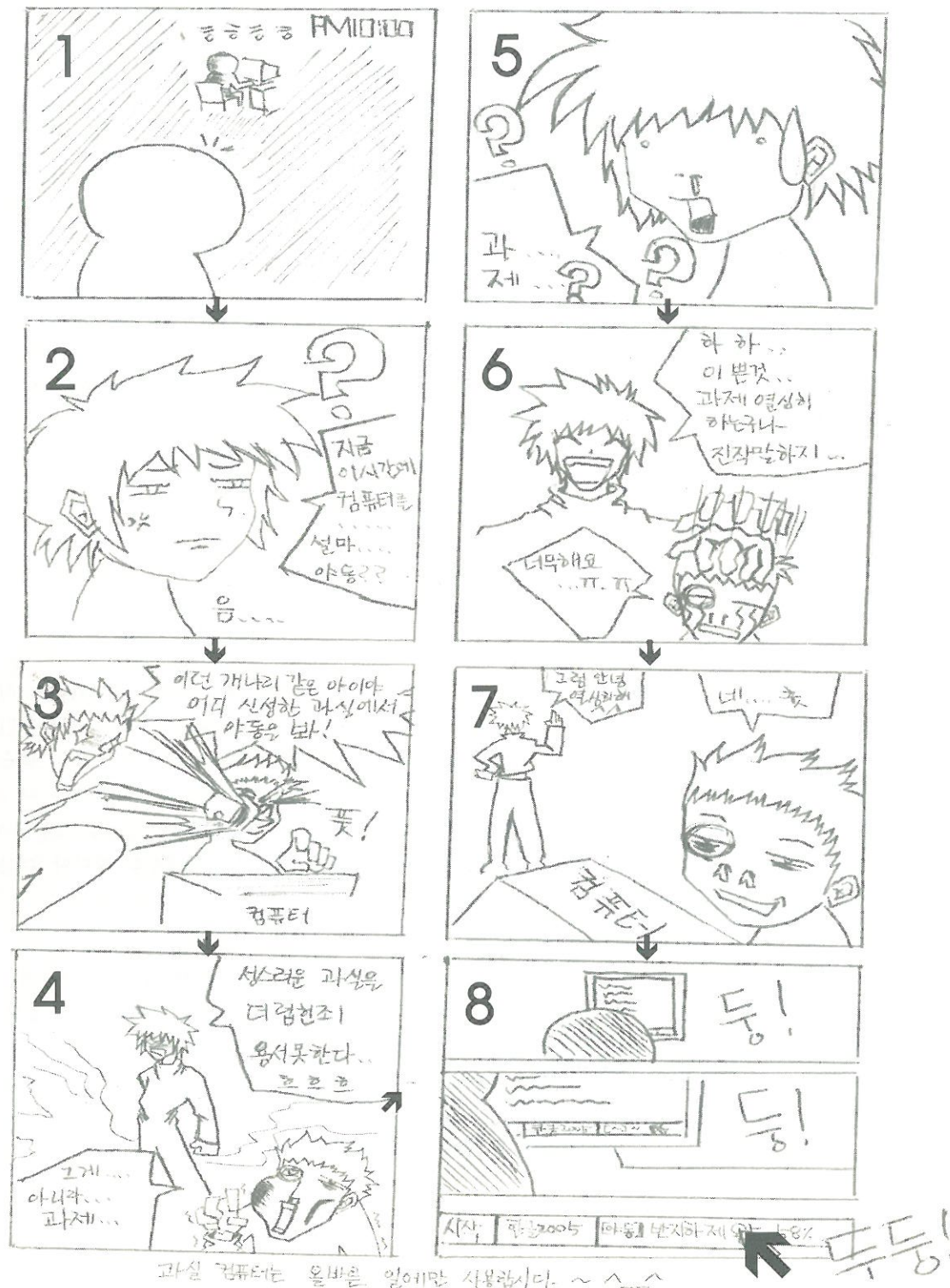
스스로에게 하는 욕들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곳저곳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 되어 들어온 아이에게 '숙제는 다했니?'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에게 욕을 해대면서도 남자는 머리한편에서 그런 생각들을 했다.



치 쉰g CaRToon-)

이강직 | 지식정보 05

학과실 컴퓨터



## 한해를 마무리하며

23대 지식정보학부 부학생회장 05 송미선

2006년은 나에게!



1월 건설 준비 위원회(이하 건준위)를 세우고 곧 들어올 새내기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새내기를 맞이할 마음에 무엇보다도 따듯했다. 총학생회에서 준비하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를 준비하며 학과의 대표로 총학생회 회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세우고,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서는 무겁고 버거운 일이었지만 혼자 아니라는 생각에 힘든 줄 몰랐다. 1월 말이 되자 06학번 합격생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06학번 카페에 접속하는 사람들도 찾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2006년의 1월은 우리에게 설렘이었다. 2월 합격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고3들의 졸업식과 우리 학과 선배님들의 졸업식사이에서 아쉬운 이별과 함께 찾아온 예비학교! 처음으로 새내기를 만나는 자리이고 건준위 임원들이 땀 흘려 준비한 첫 행사다! 많은 새내기들이 와 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오더라도 새내기들이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 앞섰다. 실제로 만난 우리 새내기들은 ‘정말 내 새끼구나’ 싶었다. 하나같이 예쁘고 하나같이 착하고 하나같이 예의바른 모습에 뿌듯했다. 처음 하는 행사라 진행에 어려움도 많았고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새내기들과 현내기들의 즐거운 시간

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고였다. 이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지고 고IF콘도로 다녀온 새터에서 새내기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반가웠다.

3월 1학년 때 보다 좀 더 성숙해진 외모와 좀 더 성숙해진 마음을 가지고 지적 능력도 한 차원 성숙해졌기를 바라며 2학년이 되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건준위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개강을 축하하며 서로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의 자리인 개강파티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전 행사가 너무 잘되어서 일까? 개강파티는 우리가 준비한 것 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훨씬 실망 적이었다. 모두 우리의 부족함이었으리라. 그 충격으로 내게 3월은 좌절이었다. 흔들림 없는 열정으로 너와 나는 함! 께! 간! 다!

4월 3월말에 이루어진 정부학생회장 선거로 인해 우리는 느림하고 믿음직스러운 윤상호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식으로 지식정보학부 23대 학생회(이하 학생회)가 건설되었다. 건설되자마자 1학기의 가장 큰 행사인 연합모꼬지가 있었다. 4월 2~3일 1박 2일로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연합모꼬지에서는 간단히 말해서 지식정보학부의 M.T.다! 이 M.T.에는 전 학년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 모두 참여하시는 큰 행사이다. 개강파티의 아픔을 딛고 이번엔 정말 많은 학우들과 정말 재밌게 정말 알차게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합M.T.를 진행했다.



120여명 되는 학우들과 함께 새내기 장기자



랑도 하고 풍선 터트리기, 양파 링 옮기기, 디비 디비 덩 등의 게임도 했으며 맛있는 편육, 두부김치, 삼겹살도 먹었다! 4월은 우리 지정인에게 배불렀다! '우주~ 선에서~ 강목이가~ 내려와 하! 는! 말!' ♪



5월 한성대학교 축제인 대동제가 열렸다. 집행부에서는 '추억의달고나만들기', '물 풍선 던지기', '팔빙수 판매', '네일아트',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서 지정인 뿐만 아니라 모든 한성인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 안에서 우리 새내기들은 KIN(Knowledge Information Nonstop)이라는 이름으로 주점을 열었다. 주점은 새내기들의 힘으로 꾸려서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을 맞이하는 행사다. 대량의 알코올도 섭취하고 약간의 노래도 흥얼거리며 얼큰한 밤을 지새웠다. 5월은 너무나 열큰했다. 6월 2월부터 5월까지 주구장창 놀기만 하고 성적은 뒷전이 된 건 아닌가 싶다. (물론 우리 지정인은 틈틈이! 꾸준히! 열심히! 해왔을 테지만...-) 6월엔 그동안 이러저러 행사로 미뤄왔던 리포트도 쓰고 필기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했다! 자신만만! archives는...DDC는...도서관경영은...??? 7-8월간의 긴 방학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다들 조금씩 달라진 것 같지

만 지정인이라는 것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기에 전혀 낯설지 않다. 2학기가 시작되자 편입하시거나 복학하신 선배님들이 대거 등장하셨다. 그 선배님들을 만나니 나도 왠지 아직 새내기인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 가을이라 날씨도 선선하고 그리웠던 얼굴들도 만나고 공부도 이제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 학생회 실에는 오는 학우만 오는 것 같고, 다들 무언가에 지쳐 보이고, 바빠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한 우리 학생회실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쓸쓸함이 여기에 까지 미쳤나 보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준비한 2학기 개강 파티와 머리가 아닌 몸으로 부대껴 앉고 뛰는 낙산체전, 그리고 며칠 전 인대 학술제까지의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나니 벌써 11월이다. 부학생회장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지 8개월여 된 시점에서 차기 회장단 선거가 눈앞에 있다. 하.. 시원섭섭!



사물함 열쇠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내가 지식정보 학부라는 큰 단체에서 흔들림 없는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발 벗고 뛸 수 있게 해준 학우들에게 제일 고맙고 멋진 23대 학생회 만들어준 집행부장들과 대의원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도맡아준 믿음직한 부학생회장 강직이,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신 윤상호 회장님과 언제나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멋진 교수님들! 이 모든 분들이 있기에 2006년은 너무 아름다웠다. 최고였지? ☺

잠깐! 2006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구!  
지정인의 밤, COMING SOON

## 지정인의 밤이란?

한성대 지식정보학부에서 학생회가 주체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다.

그 많은 행사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1학기 때 하는 연합엠티와 또 하나는 2학기 때 하는 지정인의 밤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엠티가 많은 선배님들과 동기들 후배님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고 즐기면서 친해지고 시작하는 한 학기 한 학년 을 즐겁게 잘 지내자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정인의 밤은 많은 선배님들과 동기들 또한 교수님들도 참석하여서 함께 저녁도 먹으며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짚어보고, 이야기도 나누며 마무리 하는 자리이다. 지정인의 밤에는 앞으로 학생회에서 봉사하게 될 학생회 분들을 소개 하는 자리도 마련 되 있어서, 학생회분들의 얼굴도 익히고 다가오는 새로운 학기에 대 해서 준비도 하고 잘해나가자는 의미도 있다. 2학기 들어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동기와 선배님들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강의 말고는 따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교수님들 편한자리 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친근해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참석하시므로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알기 힘든 많은 정보를 대 선배님들을 만나 얻을 수도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지정인의 밤 행사는 학생회 행사들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나가는 행사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지정인의 밤은 12월 1일 한성대학교 DLC에서 3시부터 열리는 세미나 이후 진행 된다고 한다. 세미나 도중에는 다과회도 있고 저녁에 있을 지정인의 밤 행사에는 학생회 분들 소개 뿐만이 아니라 2006년 한 해동안 있었던 학과 행사 때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 지정인 분들의 장기자랑 등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 학회실에 출입이 적었던 학우 분들이나, 학교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우 분들도 지정인의 밤 행사를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정인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知識情報 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일찍 온 학우 분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도 있다고 하니 조금 서둘러 보자!

금돈섭 선전부원



### 9월 23일 개강파티

1학기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열린 2학기 개강파티.  
장소는 UP&UP, 아담한 공간에서\* 무럭무럭 선후배간의 정이 오고가는 뜻 깊은 자리였다!

### 9월 4일 ~ 29일 한 달간의 대장정 낙산체전

축구, 농구, 피구, 발야구... 예선전을 시작으로 결승전까지 한 달여간의 대 장정!  
결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한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며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는 지식정보학부가 3위를 하여 상금 20만원을 탈 수 있었다.  
받은 상금 20만원으로 그날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학우들끼리 연천군 농민들과의 연대주점에서 간단한 뒤풀이를 했다.



◁ 마라톤에 참여했던 학우분들 모습

### 9월 29일 등불제

1학기에 대동제가 있다면, 2학기엔 등불제가 있다!  
전통 있는 한성 가요제가 열려 한성대의 명가수들이 총 집합했고,  
가수 레이저본, 브라운 아이즈 걸즈가 대학의 젊은 열기를 더 북돋아 주었다.

### 10월 31일 지식정보학부 취업간담회

이우범 교수님의 지식정보학부생을 위한 취업준비 가이드를 시작으로,  
춘천시립도서관 사서계에서 근무하고 계신 정재욱 선생님의 공무원 시험 준비 노하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CJ미디어에서 근무하고 계신 윤은정 선생님의 경험담까지...  
1학년 신입생부터 4학년 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이었다.

### 11월 8일~10일 인문대 학술문화제

3일동안 강연, 영화제, 가요제 다양하고 알찬 행사로 가득 채워진 인문대 학술문화제!  
첫째 날인 8일 12시에는 개막제와 퀴즈대회가 열리고, 오후에는 영화 '13구역' 을 상영합니다.  
둘째 날인 9일에는 홍세화씨의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강연이 있었다.  
10일에는 폐막제와 가요제가 열려 많은 인문대 학우 분들이 참여했다.  
그 중 우리 과 김태우 학우와 이시연학우가 참여하여 특별상을 받았다고 한다.  
인대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 편지해주세요~☞

강현기학우>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사서함505-21호  
33MCC 이병 강현기

김영국학우>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동  
사서함 209-105-1 우편번호 :790-909  
해병대 제 2716부대 본부중대 일병 김영국

남신욱학우>  
강원도 강릉시 강릉우체국 사서함 51호  
제 2613부대 3중대 210-600 이병 남신욱

조현관학우>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191번지  
8098부대 3대대 10중대 5분대 이병 조현관

김창현학우>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사서함 2호 제 5003부대  
1대대 3중대 1소대 우편번호 413-040  
일병 김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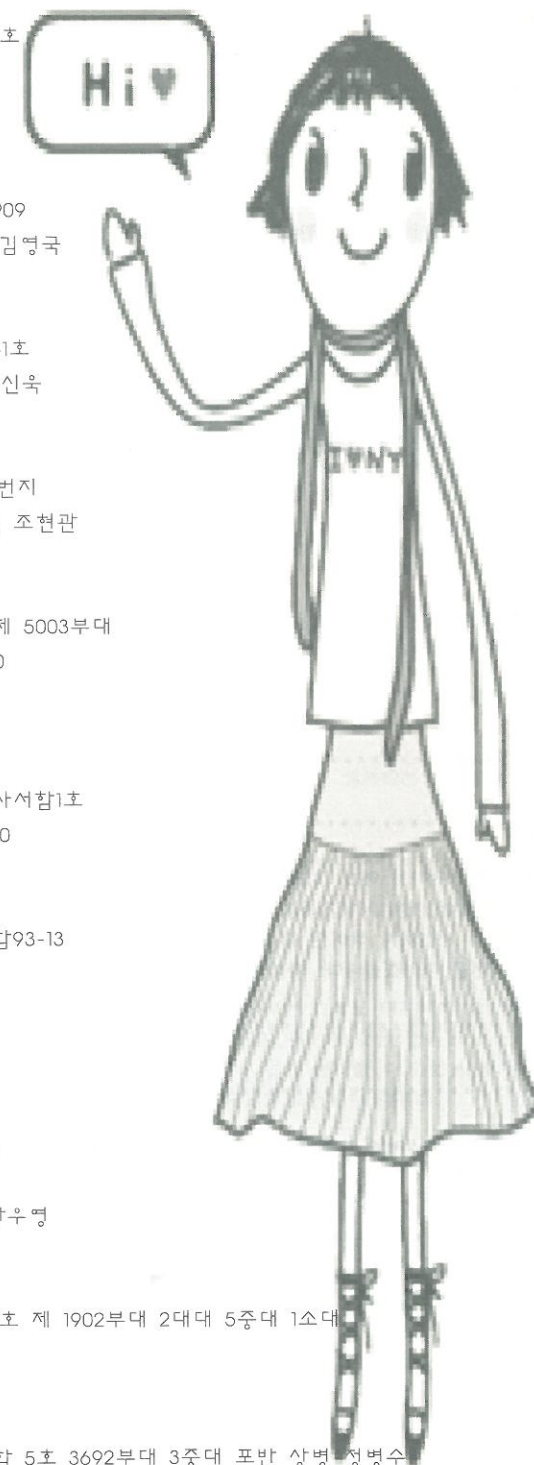
김영호학우>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우체국 사서함1호  
국방부 파견대 김영호 우: 486-800

김태형학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달리 사서함93-13  
전투지원중대 대전차소대  
일병 김태형 우:209 - 838

장우명학우>  
우편번호 413-90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33  
문산우체국 사서함23호  
육군 제6859부대 제 3 포대 상병 장우명

윤원진학우>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사서함 73-18-2호 제 1902부대 2대대 5중대 1소대  
일병 윤원진

정병수학우>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사서함 5호 3692부대 3중대 포반 상병 정병수  
우편번호 476-833





# 知識情報 그림비 편집후기

## 선전부장 05 최봄이

내게 선전부 활동 중 가장 애착이 갔던 것은 그림비의 재발행이다. 몇 년간 발행되지 않았던 그림비를 다시 만들려다 보니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 항상 고민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나아진 두 번째 작업을 보니 뿌듯하다. 그림비에 참여 해달라고 찾아다니며 부탁하러 다니면서 눈물 흘리고, 후배들한테 얼른 기사 내라고 재촉하던 것, 편집을 하면서 허우적대던 모습도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겠지? 여러모로 도움 주신 강순애 교수님, 이용남 교수님, 황정미 선배님, 최은영 선배님, 최원 오빠, 강직이, 승마, 용덕이, 유리 다환이한테도 정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올 선전부원들 정말 고맙고 최고로 수고 많았다! 그림비 나오면 회식하자 !!!!!!!

## 선전부 차장 05 임혜미

그림비 편집을 하면서, 무언가 맡은 것을 해내는 것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것인지 새삼 느꼈고, 각자 맡은 부분을 열심히 해준 부원들과 많은 조언을 해주신 강순애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그림비가 우리 학우들이 발행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정보지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 선전부원 06 장경선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글들 중의 하나가 아닌, 제가 느끼고 경험 했던 내용을 싣는다는 점에서 뜻 깊게 학회지 발간에 힘을 모았습니다. 지식정보학부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보 또한 공유 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그림비가 되길 바랍니다.

## 선전부원 06 임경아

두 번째 그림비 발행을 축하합니다!! 이번 그림비는 첫 번째 그림비보다 더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알찬 내용들로 채워진 것 같아요! 07학번 예비 새내기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벌써 선배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지만 합니다. ㅎㅎ명쾌하게 질문에 대답하고 사진까지 찍어준 07 학번 새내기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그림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

## 선전부원 06 이혜리

마지막으로 선전부에서 만드는 그림비인만큼 애착이 간다. 그림비를 위해 수고하신 선전부학우들과 선배님,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그림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선전부원 06 윤지예

나는 이번 그림비에서 영화 추천에 관한 글을 썼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 새롭고 특이한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지난번보다 내게 할당된 부분이 더 커져서 걱정을 하기도 했으나, 잘 나오리라 생각한다. 다른 부원들은 잘 했을 테니깐 말이다. 내 글을 보고 정말 내가 추천한 영화 <삼거리 극장>을 본다면 뿌듯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선전부원 모두 파이팅!

## 선전부원 06 강다해

그림비의 성공적인 발행을 축하하구요!! 선전부 부원으로써 참여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정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할 수 있는 학회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선전부원 06 석운재

두 번째 그림비 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첫 번째 그림비 발행보다 더 잘 만들기 위해 조원들 모두가 고생을 한 것 같고, 좋은 작품으로 완성이 될 것 같다. 그림비를 만드는 과정이 비록 힘들긴 하지만 그림비를 봤을 때 뿌듯해 질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레고 보람이 느껴진다. 항상 발전하는 선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 선전부원 06 금돈섭

지정인의 밤을 소개하면서 지정인의 밤에 어떤 행사인지 알 수있었고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1학기 때에는 그림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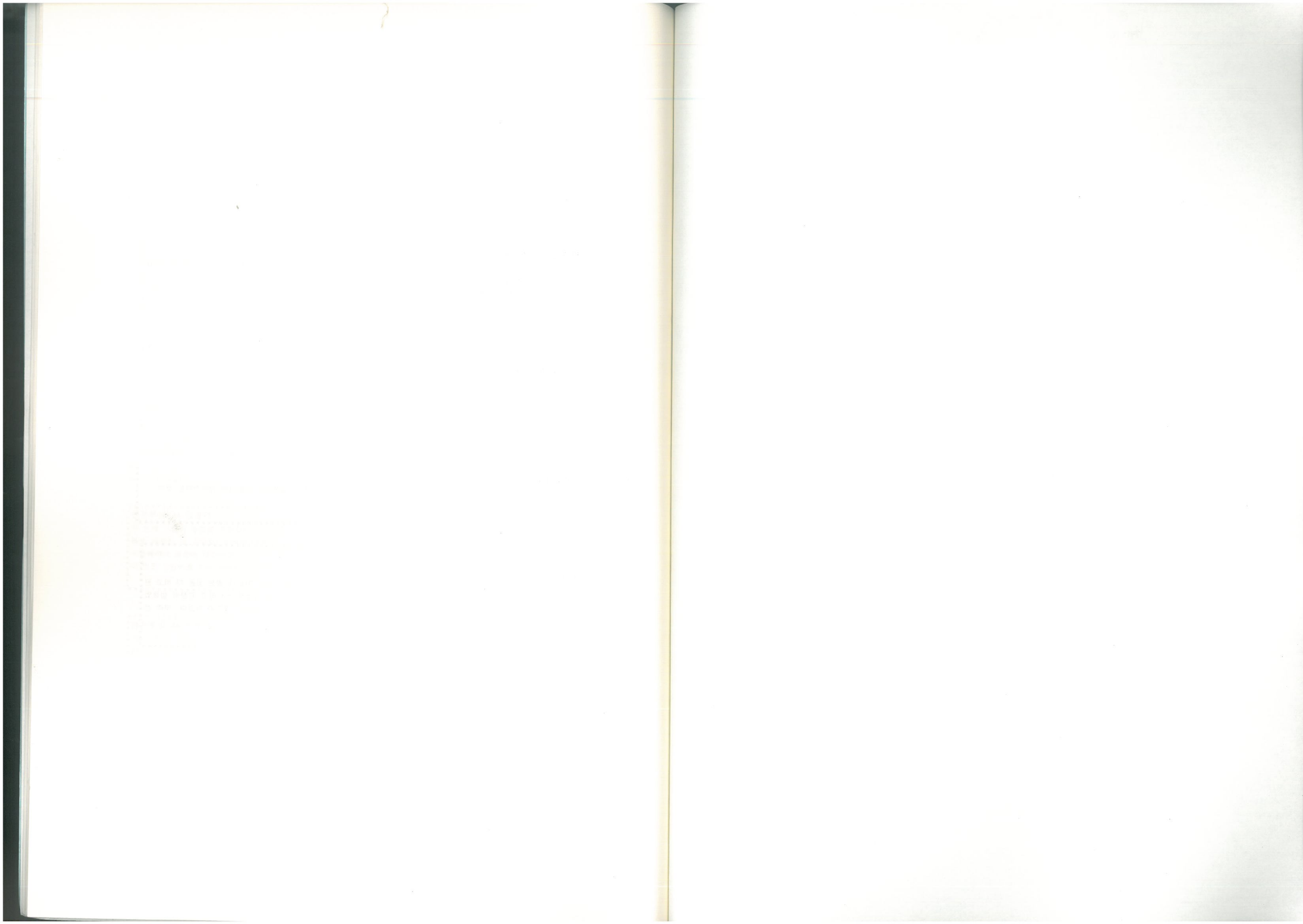
## 선전부원 06 이시연

대학에 와서 글을 쓰고, 무엇인가를 편집한다는 것에 설레었다. 우리학과에서 발행하는 그림비에 참여한다는 것이 기뻐고,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 선전부원 06 김남호

1학기 때 한번, 그리고 이번에 학회지를 만들면서 힘든 점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내 맡은 일을 다 하고 편집이 돼서 나오는 학회지를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 이번에 한번도 써보지 못한 칼럼은 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이 번 일로 인해서 나의 전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우리 선전부원들 모두모두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 그림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그림비

지식 정보 학 부 학 회 지  
2006 VOL.2



편집장 | 최봄이

편집위원 | 임혜미 이시연

기획 | 선전부

기자 | 강다해 금돈섭 김남호 석운재

이혜리 임경아 임혜미 윤지예

이시연 장경선 최봄이

발행 | 지식정보학부

발행일 | 2006년 11월 21일

흔들림없는 열정으로,  
너와 나는 함! 께! 간! 다!